

김영록 전남도지사 “화순 백신특구, K-바이오 국가거점 육성”

28일 화순군서 도민과의 대화 진행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 약속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8일 화순군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특구를 K-바이오 국가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화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바이오헬스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320억 원)과 백신국가 면역치료 플랫폼(480억 원) 유치를 발판으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면역 중심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형 첨단의료복합단지 밑그림을 완성했다.

전남은 이미 바이오메디컬 인프라가 갖춰져 충북 오송·대구·경북 등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비해 최소 비용으로 조기 활성화가 가능하다. 특히 전남-충북-대구·경북을

잇는 비수도권 첨단의료 삼각축이 완성될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의료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중앙부처와 국회,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반드시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겠다”며 “유치 시 1조 원 규모의 국가 의료 연구개발 지원센터들이 들어서 국가 첨단바이오 연구개발, 벤처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주민들은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부터 지역 현안과 열악한 SOC 확충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주민들은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대한 협력(유재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첨단화학연구소장) ▲남도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 개최 지원(한대영 화순제일중 1학년) ▲폐광지역 대체산업 지

원 확대(임동휘 동면 이장단장) ▲오피스마을 만들기 사업비 증액(정순금 화순읍 벽라1리 이장) ▲나주 남평-화순 능주 지방도 822호선 확포장 공사 추진(김광기 도곡면 이장단장) ▲공공미술 프로젝트 확대 운영(한동훈 화순예술인촌 입주작가) 등을 요청했다.

화순군에서도 읍내 주거지 주차장 조성 소요사업 도비 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해당 지역은 내년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개원 시 주차장 이용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관련, 김 지사는 “생산감소 등 석탄공사의 경영 악화로 폐광지역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도 차원에서 지역 지원 방안과 퇴직근로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 건의에 대해선 “나주 남평-화순 능주 구간의 교통량 증가를 감안, 도로 확포장을 위해 남평 1.85km 구간 설계를 추진 중”이라며 “10km 잔여구간은 전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해 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8일 화순군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특구를 K-바이오 국가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화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바이오헬스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320억 원)과 백신국가 면역치료 플랫폼(480억 원) 유치를 발판으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 제공

말까지 계획을 수립,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

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된 광주-화순 광역철도(5천225억·12.4km)를 지속 건의하는 한편, 경전선 남해안

철도가 화순을 통과하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윤규진 기자

광주 장록습지 생물다양성 탐사캠프 개최

9일, 탐사챌린지·현장탐사·온라인 토의 등 진행

광주시는 지난해 도심 속 첫 국가습지로 지정된 장록습지에서 '제1회 2021 장록국가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를 9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탐사는 일반인 참가자들이 생태전문가와 함께 일정한 지역을 관찰하고 탐사해 생물분류군별 서식목록을 작성하는 과학 참여 활동이다.

장록습지에 깃든 생명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지키기 위해 전문가군

40명과 학생참가자 100명을 모집해 5개 분류군별로 팀을 구성했다.

이번 탐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전문가들이 5개 분야 생물종분류군(식물, 곤충, 조류, 어류, 양서·파충·포유류)별로 장록습지 일대를 현장조사하고, 온라인공간에서 참가자들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오는 8일까지 페이스북 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장록국가습지 #생물다양성탐사)를 활용

한 탐사사진을 첨부하거나 궁금한 점을 올리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행사당일인 9일에는 전문가가 2차에 걸쳐 탐사활동을 하고, 이후 온라인(ZOOM)에서 5개 분류군별로 전문가와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이야기마당과 생물종목록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탐사활동은 1차 10:30~12:00, 2차 13:00~14:30이며, 온라인방은 이야기마당 14:30~15:30, 생물종목록발표 15:30~16:00 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홈페이지(https://cafe.daum.net/forestguide), 유

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8pePBD_Kho_ahRiN9sggBg) 및 전화(062-223-3279)로 확인 가능하다.

조사된 생물종 목록은 장록습지 보존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지속적인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록습지는 영산강과 생태적 통로를 형성하며 주변경관이 우수하고 습지원형이 잘 보존된 하천습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심 내 첫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윤규진 기자

광주, 하반기 음식물자원화시설 정기보수

광주시는 오는 12일부터 공공 음식물자원화시설 하반기 정기보수를 시행한다.

제1음식물자원화시설(150t/일)은 10월12일부터 21일까지, 제2음식물자원화시설(300t/일)은 11월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다.

공공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부패도가 높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특성상 설비가 빨리 노후돼 주기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다. 이번 정기보수 기간에는 소모성 부품과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사전예방 점검과 법정 검사 등을 할 예정이다.

정기보수 기간에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보수를 하지 않는 공공시설에서 평상시 용량의 20% 늘려 처리하고 민간시설 2곳에 분산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일 최대 300t을 처리하는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광주지역 가정(소형음식점 포함) 발생량의 59%를 처리해 분산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수기간 ▲필요한 만큼 장비기 ▲먹을 만큼 조리하기 ▲물기 제거 등 시민들의 생활 속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실천이 필요하다. /김정관 기자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9.1-10.3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장소 |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디자인진흥원 주최 | 광주광역시 주관 | (재)광주디자인진흥원 협력주관 | 광주시립미술관